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핵심개념 ‘관계’ 단원에 구현된 교과역량 분석

김수민* · 유난숙**1)

*문정중학교 교사 ·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생활과학연구소

Analyses of Subject Competencies of the Units Related to Core Concept 'Relation' in Middle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based on 2015 Revised Curriculum

Kim, Soo Min* · Yu, Nan Sook**1)

*Teacher, Munjung Middle School

**Associate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Ec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velop analysis criteria and analyze the two subject competencies of units dealing with the core concept 'Relation' of the middle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 in accordance with the 2015 revised curriculum: 'practical-problem-solving-ability' and 'relationship ability'. The subject of analysis of the current study was the activity assignment of Chapter 1 related to the core concept 'Relation', from the twelve middle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II' textbook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ome textbooks showed differences in highlighting or downplaying the components of certain subject competencies. The analysis results for 'practical-problem-solving-ability' in textbook A, E, and G were shown in the high frequency, while in textbook D in the lowest frequency. The analysis results for 'relationship ability' in textbook K and A were shown in the high frequency, while in textbook J in the lowest frequency. Second, *Value Judgement* was the most frequent component of 'practical-problem-solving-ability' followed by *Logical Thinking*, *Practical Reasoning*, and *Decision-Making*. *Family Relation and Sense of Community* was the component of 'relationship ability' most frequently dealt with followed by *Communication*, *Conflict Management*, and *Respecting Others*, however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Awareness* was not shown at all. The two subject competencies were mostly reflected in the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from all the twelve publishers.

Key words: 2015개정 교육과정(2015 revised curriculum), 교과서 분석(textbook analysis), 교과역량(subject competency), 핵심개념(core concept), 관계(relation), 실천적문제해결능력(practical-problem-solving-ability), 관계형성능력(relationship ability)

1) 교신저자: Yu, Nan Sook,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ongbong-ro 77, Buk-gu, Gwangju, 61186, The Republic of Korea,
Tel: 062-530-2524, Fax: 062-530-2529, E-mail: nansooksb@gmail.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래는 지금보다 지식과 정보가 더 크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더 빠르게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전통적인 교과 중심의 수업으로는 일상생활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능력을 길러주는 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교육과정 등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과정 연구자들은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문제 상황에 적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역량에 주목하게 되었고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패러다임의 전환 요구와 창의 융합형 인재에 대한 국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과 ‘핵심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핵심역량’은 많은 가능한 역량 가운데 삶에 걸쳐서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의 역량만을 추출하기 위해서 OECD의 DeSeCo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에서 도입된 용어이다(So, 2007). DeSeCo 프로젝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국가 또는 주 수준의 교육과정이 역량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역량은 직무나 업무의 성공적 수행과 관련된 직무 기술, 개인적 자질, 태도 등으로 이해되는 복합적 능력(Sung, Choi, Kim, Oh, & Jin, 2015)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교육은 사회적 삶에서 강조하고 있는 역량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역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의 개정을 시도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학습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성취기준과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 시작하였다(Kwon, Kim, & Lee, 2013). 핵심역량은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를 말하는 것이다(Lee,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과 함께 각 교과의 ‘핵심개념’ 및 ‘교과역량’을 제시하였다.

기술·가정교과의 핵심개념 중 ‘관계’ 관련 단위에는 가족 구조와 기능 변화, 가족구성원의 역할, 다양한 가족관계의 유형과 특징, 양성평등하고 세대 간의 민주적인 가족관계,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 효과적인 의사소통,

가족 간의 갈등 해결 방안이 주된 학습요소로 명시되어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2015a). 또한 2015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 ‘가정생활’ 분야의 핵심개념 ‘관계’ 세부목표에서는 교과역량 세 가지 중에서 ‘실천적문제해결능력’과 ‘관계형성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a). 다양한 유형의 가족생활방식 및 가족구조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저마다 다른 가족구조와 생활 속에서 성장하며 경험하므로, 가정과교육과정에서는 청소년들이 미래 자신의 결혼과 가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계획하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과역량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과역량이 강조되는 2015개정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교사가 기본적인 수업교재로 이용하는 교과서에 교과역량이 적절하게 구현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학교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등을 강조한 바, 학교 현장의 ‘골든 룰’이었던 교과서의 기능이 다소 퇴색되었고, 많은 교사가 학교교육과정, 학급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정과교사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에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이용(Yu & Chae, 2009)하기 때문에 질 높은 교과서는 질 높은 수업과 여전히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Jin 등(2015)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시 유의사항으로 지식, 내용 중심의 진술을 지양하고 가급적 문제해결 활동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제로 갖추어야 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역량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역량에 대한 교육과정 분석 및 설계, 프로그램 개발, 인식 및 개선 연구 등이 이루어졌지만, 교과서 분석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핵심개념 ‘관계’와 밀접한 주제인 ‘가족’을 중심으로 교과서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주로 주제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 ‘가정생활’ 분야의 교과역량 중에서 ‘실천적문제해결능력’과 ‘관계형성능력’의 분석기준을 설정하여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핵심개념 ‘관계’ 관련 단원의 활동과제를 분석하는 데 있다. 가정생활 분야의 세 가지 교과역량 중에서 ‘실천적문제해결능력’과 ‘관계형성능력’만 살펴보는 이유는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세부목표에서 ‘가정생활’ 분야의 핵심개념 ‘관계’와 관련된 세부목표 내용이 실천적문제해결능력, 관계

형성능력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과서 활동과제에 나타난 교과역량의 경향을 파악한 것으로 교과역량의 함양 및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의 구성 및 교수·학습 방법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핵심개념 '관계' 단원에서 교과역량 '실천적문제해결능력'과 '관계형성능력'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분석하고자 분석 준거를 개발한 후에 활동과제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핵심개념 '관계' 관련 단원에서 교과역량 '실천적문제해결능력'과 '관계형성능력'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교과서 종류별로 분석한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핵심개념 '관계' 관련 단원에서 교과역량 '실천적문제해결능력'과 '관계형성능력'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교과역량별로 분석한다.

II. 관련 문헌 고찰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핵심역량, 교과역량, 핵심개념 '관계'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core competence'이나 'key competence' 등으로 표현되는 핵심역량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도구를 상호적으로 활용하기(Using tools interactively), 이질적인 집단에서 사회적 상호작용하기(Interacting in heterogeneous groups), 자율적으로 행동하기(Acting autonomously)를 제시하였고,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것은 삶의 다양한 분야로부터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고, 개인의 성공적인 삶과 잘 기능하는 사회

를 이끄는 데 공헌하며, 모든 개인에게 필요한 성격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So, 2007). 이 프로젝트 이후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조화 및 확산시켰다.

우리나라도 학교교육에서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에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되어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 핵심역량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 핵심역량 개념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가 복합적으로 발현되어 나타나는 총체적인 능력이며, 초·중등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가 길러야 할 기본적인 필수적이며 보편적인 능력으로 사회적 맥락이 강조되고 발달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보았다(Lee et al., 2014; Ohn et al., 2016). 교육과정 문서에 '핵심역량'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었으며(Kim, 2017),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교과별 역량을 중심으로 내용 체계를 구성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역량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의 구현을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 총론에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 6가지를 제시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5b). 핵심역량은 그 자체로만 길러지는 것은 아니며 각 교과에서 길러주고자 하는 능력 계발을 통해 함양될 수 있다는 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과 함께 교과역량을 설정하였다(Kim et al., 2015; Ohn et al.,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역량은 각 교과의 성격을 반영하여 제시되며 교과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에서 각 교과의 성격, 내용 체계 등에 교과역량을 반영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Lee,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에서는 교과를 통해 함양하고자 하는 교과역량에 대한 소개가 강화되었다. 기술·가정교과는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 분야로 구분되며, '가정생활' 분야에는 '실천적문제해결능력', '생활자립능력', '관계형성능력'의 3가지 교과역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가정생활' 분야의 세부목표에도 나타나고 있다. 교과역량은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육과정 총론의 6가지 핵심역량을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교과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영역 간 연결성과 함께 학년 간의 연계성, 과목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조화한 것이다. 2015 개정 기술·가정 교과와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가정생활’ 분야는 ‘인간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자원관리와 자립’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첫 번째 영역으로 ‘인간발달과 가족’은 ‘발달’과 ‘관계’라는 두 가지 핵심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개념 ‘관계’의 내용요소에는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가족 관계’,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관리’ 등이 있으며, 학습요소에는 ‘가족 구조와 기능 변화’, ‘가족 구성원의 역할’, ‘다양한 가족 관계의 유형과 특징’, ‘양성평등하고 세대 간의 민주적인 가족 관계’,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 ‘효과적인 의사소통’, ‘가족 간의 갈등 해결 방안’ 등이 있다. 이러한 내용체계가 큰 그림의 형태로 교과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성취기준’은 제시된 내용을 학습자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습득한 결과와 그 결과로 수행하거나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성취기준’으로 진술한 것이며, 이는 내용 기준이 아닌 수행 기준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Lee et al., 2015; Ohn et al., 2015). 핵심개념 중 ‘관계’에 관련된 성취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가족관계)에 대한 이해 및 건강한 가족의 실천을 위한 역할 탐색, 다양한 가족 관계의 이해, 양성평등 및 세대 간의 민주적 관계 형성을 위한 방안 탐색, 가족 관계 내 갈등 및 의사소통을 통한 해결방안 탐색 등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핵심개념 ‘관계’ 관련 ‘가족’ 단위 교과서 분석 선행연구 고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개념 ‘관계’와 관련된 내용체계의 내용요소와 학습요소를 통해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관계’는 다양한 관계 중에서도 ‘가족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개념이다(Lim & Jun, 2016). 이를 통해서 본 연구자는 핵심개념 ‘관계’를 ‘가족’ 측면에서 교과서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Lee(2010)의 연구를 활용하여 ‘가족’ 단위 교과서 분석 선행연구들의 유형을 분류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역사적 관점에 따른 교과서 분석의 선행연구에는 Kim & Jun(2012)이 있다. 이 연구는 제 1차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2007 개정까지 가정 교과 교육과정 해설서 및 총 58권의 가정 교과서의 제시된 가족 분야 내용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가정 교과서의 가족 분야 내용과 비중을 분석하였다.

학년별 연계성에 관한 교과서 분석 선행연구로 Lee(2002), Jung(2004), Wang 외(2012)의 연구가 있다. Lee(2002)는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초등학교 실과와 중·고등학교의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족과 일의 이해’ 영역의 내용을 통해 학년간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Jung(2004)은 기존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제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가족의 일과 이해’ 영역의 차별된 부분을 중점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발전된 내용과 반복된 내용, 축소된 내용, 격차가 나타난 내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Wang 외(2012)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점 사항으로 내세운 초·중등 기술·가정과의 연계성 강화 및 적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을 중심으로 초·중·고등학교 학년간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특정 관점에 따른 교과서 분석 연구로는 Kim과 Yoo(2004), Kim과 Cho(2008), Kim(2017)이 있다. Kim과 Yoo(2004)는 양성평등적 관점에 기초하여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가정 교과서 삽화를 등장인물의 성별구성, 성별분포, 관계, 옷차림, 성역할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Kim과 Cho(2008)는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족 관련 단위 내용을 구조기능론, 발달론, 건강가족관점으로 접근하여 가족구조와 역할, 발달주기, 가족관계, 노후적응, 결혼과 출산을 분석 요소로 하여 가족 단위를 계량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Kim(2017)은 가족다양성 관점에서 정체성, 다양성·다원성, 차별과 편견, 상호의존과 공존영역으로 분석 기준을 설정하여 전체적 경향과 활동과제를 중심으로 중학교 가정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가정 교과서와 외국 교과서의 비교 분석한 Kang과 Chin(2017)은 한국과 미국의 가정과 교과서의 ‘결혼과 가족’ 영역에 대하여 건강가정 관점에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 한국은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의 유지·창조, 합리적 자원관리,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을 중심으로, 미국은 가정의 경제적 안정, 안정적인 의식주 생활, 열린 대화, 자녀의 성장발달 지원, 합리적인 자원관

Table 1. Literature on textbook analysis related with ‘relation’ and ‘family’

Type of Analysis	Paper title	Author(s)
역사적 관점	교육과정 시기에 따른 가정교과 가족분야의 내용변천에 관한 연구	Kim & Jun(2012)
학년별 연계성	초등학교 실과와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교과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 ‘가족과 일의 이해’ 단원을 중심으로	Lee(2002)
	중·고등학교 가정교과의 ‘가족생활’ 영역 연계성 분석	Jung(2004)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실과(기술·가정) 교과의 초·중·고등학교 학년 간 연계성 분석 :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을 중심으로	Wang, Ryu, & Back(2012)
특정 관점	양성평등적 관점에 기초한 7차 교육과정 가정 교과서 삽화의 단원별 계량적 내용 분석	Kim & Yoo(2004)
	실과(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족관련 단원 내용 비교분석 : 구조기능론·발달론과 건강가정 관점에서	Kim & Cho(2008)
	가족다양성 관점에서의 중학교 가정교과서 가족단원 분석	Kim(2017)
외국 교과서와의 비교	한·미 고등학교 가정과 교과서의 ‘가족’관련 내용 비교: 건강가정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Kang & Chin(2017)
타 과목과의 비교	중학교 가정교과와 다른 교과의 교육내용 관련성 분석	Cheong, Lee, & Yoo (1998)
	중학교 가정 교과 교과서와 타 교과 교과서 ‘가족생활’ 영역의 중복성 분석	Kim(2014)
출판사별 비교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족’에 관한 연구 :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하는 가족’ 단원을 중심으로	Choi(2002)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에 관한 연구 :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하는 가족’ 단원을 중심으로	Jun(2012)

리, 가족의 역할 공유, 건강한 시민의식, 일과 가정의 조화 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교과서와 타 교과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선행연구에는 Cheong 외(1998)와 Kim(2014)가 있다. Cheong 외(1998)는 제6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가정 교과와 다른 교과 교육내용의 관련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관련된 용어, 개념, 원리, 내용을 발췌하여 선별한 후 가정과의 영역별로 분류하여 다른 교과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Kim(2014)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중학교 가정 교과서의 ‘가족생활’ 영역의 내용요소를 중심으로 도덕, 사회, 과학, 체육 교과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중복성·차별성을 파악하였다.

동일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를 출판사별 비교·분석한 선행연구에는 Choi(2002)와 Jun(2012)이 있다.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족생활’ 영역을 분석한 Choi(2002)의 연구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10종의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족생활 영역을 단원별 체제, 지도영역,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Jun(2012)은 2007 개정 교육과정 8학년 11종 가정 교과서의 ‘변화하는 가족’ 단원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가족’ 단원의 전개 양상과 가족의 정의와 특성,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변화로 다양한 가족 형태의 출현, 가족의 기능과 가치 관 및 역할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가족’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과서 분석 선행연구는 다양한 유형과 관점으로 연구되어 왔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핵심개념 ‘관계’에 초점을 둔 ‘가족(관계)’ 단원의 교과역량 분석 연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2015 개정 기술·가정교육과정에서는 교과역량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교과역량의 하위요소별 분석 준거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핵심개념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족(관계)’ 단원에 구현된 교과역량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2018년부터

중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12종의 「기술·가정 2」 교과서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범위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내용체계의 ‘가정생활’ 분야 중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으로 핵심개념 ‘관계’와 관련된 내용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단원으로서 「기술·가정 2」 교과서의 I 단원으로 선정하였다. 출판사별 단원명의 차이가 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서 제시한 핵심개념 ‘관계’와 관련된 내용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단원으로 선정하였다(<Table 2> 참조).

분석 대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핵심개념 ‘관계’ 관련 단원 내용 중 교과서의 활동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교과역량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가 복합적으로 발현되는 총체적인 능력인 핵심역량을 구체화하는 개념이므로 교과역량을 분석하기 위해 교과서의 내용 중 학생들이 실제로 탐구 및 문제해결과정을 수행하는 활동과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활동과제는 본문이나 개념을 설명하는 것 외에 제시된 학습 자료의 내용 중 학생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학습활동을 요구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과제이다. 이에 학습 자료 중 개념 및 용어를 설명하거나 그림/표/사진 등 시각적인 자료, 읽기자료, 스스로 점검해보기 등 학생들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지 않은 자료와 단원을 마무리하는 활동과제의 경우에는 학습한 개념을 정리하기 위한 형태의 과제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활동과제는 출판사별 구성 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생각열기(주제열기), 생각해보기, 조사해보기, 주제 활동, 프로젝트 활동 등을 활동과제로 포함하였다. 그러나 활동과제 안에 2개 이상의 활동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활동별 과제를 분리하여 개별 형태의 과제로 분석하였다.

2. 분석 절차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핵심개념 ‘관계’ 관련 단원의 활동과제에 교과역량이 어느 정도 구현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우선 분석준거를 설정한 후,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과제들에 분석준거가 포함되었는지 분석하는 연역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준거를 설정하기 위해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설정 연구(Lee et al., 2014)와 미래 한국인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비전연구(II)(Lee, Min, Jun, Kim & Kim, 2008),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2015a),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Ministry of Education, 2015b)의 교과역량 ‘실천적문제해결능력’과 ‘관계형성능력’의 정의를 참고하였다. 설정한 분석준거를 중심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12종의 핵심개념 ‘관계’ 관련 단원에서 제시된 활동과제를 분석하였다.

Table 2. Subjects of textbook analysis

교과서명	기호	출판사	저자	단원명
중학교 기술·가정 2	A	교문사	최완식 외	I. 인간 발달과 가족
	B	(주)교학도서	이봉구 외	I. 인간 발달과 가족
	C	(주)교학사	정성봉 외	I. 인간 발달과 가족
	D	(주)금성출판사	조강영 외	I. 건강한 가족 관계
	E	동아출판(주)	왕석순 외	I. 건강 가정과 가족 관계
	F	(주)미래엔	윤인경 외	I. 가족의 관계와 이해
	G	(주)비상교육	김지숙 외	I. 건강한 가족 관계
	H	(주)삼양미디어	채정현 외	I. 건강한 가족 관계
	I	씨마스	문성환 외	I. 가족 관계의 이해
	J	원교제사	김기수 외	I. 가족의 이해
	K	지학사	최유현 외	I. 건강한 가족
	L	(주)천재교과서	이춘식 외	I. 가족의 이해

3. 분석 준거 개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12종 중학교 「기술·가정 2」 교과서의 핵심개념 '관계' 관련 단원에서 교과역량의 분석 준거는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설정 연구(Lee et al., 2014)'와 '미래 한국인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비전연구(II)(Lee et al., 2008)', 그리고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2015a)',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Ministry of Education, 2015b)' 등을 참고하여 <Table 3>과 같이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분석 준거를 개발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성격에 제시된 '가

Table 3. Analysis criteria of 'practical-problem-solving-ability' and 'relationship ability'

교과역량	하위요소	정의	비고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어떤 아이디어의 적절성을 정밀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사고하기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제시된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정의
	논리적 사고	연역적/귀납적 추리에 근거하여 사고하기	이광우 연구에서 추가하였으며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제시된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정의에 포함된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통한 문제 인식'에서 분리
	실천적 추론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가치, 문화 등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치에 맞는 최선의 행동을 탐구하는 과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제시된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정의
	의사결정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안 중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제시된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정의
	가치판단	어떤 사실에 대해 주관적인 가치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제시된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정의
	해결 방안의 실행	선택한 해결방안을 실제로 실행하기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제시된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정의에 포함된 '실행능력'과 이광우 연구의 하위요소 '해결 방안의 실행·평가'에서 분리한 후 통합
	해결 방안의 평가	선택한 해결방안을 실제로 실행한 후 평가하기	이광우 연구에서 추가하였으며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제시된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정의에 포함된 '해결 방안의 실행·평가'에서 분리
관계형성 능력	타인 존중	타인의 성격, 개성, 가치관 등을 인정하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관용적인 태도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제시된 '관계형성능력'의 정의에 포함된 '타인 존중과 소통'에서 '타인 존중'과 '소통'으로 분리한 후 이광우 연구의 하위요소 '타인의 이해 및 존중'과 통합
	배려와 돌봄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거나 도와주려고 마음을 쓰는 태도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제시된 '관계형성능력'의 정의
	환경 및 생태 의식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자신의 소비습관, 생활방식을 변화시키는 태도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제시된 '관계형성능력'의 정의
	가족관계와 공동체의식	가족관계와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태도와 가치관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제시된 '관계형성능력'의 정의
	공감능력	상대방의 상황이나 입장이 되어 대신하여 느끼는 것을 통해서 지각하는 능력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제시된 '관계형성능력'의 정의에 포함된 '공감능력'과 '갈등관리'에서 분리하고 이광우 연구의 하위요소 '공감'과 통합
	갈등관리	갈등을 의미 있고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태도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제시된 '관계형성능력'의 정의에 포함된 '공감능력'과 '갈등관리'에서 분리
	의사소통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상징, 텍스트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제시된 '관계형성능력'의 정의
	문화수용성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이해·존중하는 태도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제시된 '관계형성능력'의 정의에 포함된 '문화수용성'과 이광우 연구의 하위요소 '문화적 감수성'을 통합
	다원적 가치 존중	우리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태도	이광우 연구의 하위요소에서 추가

정생활' 분야에서 강조하는 교과역량인 '실천적문제해결능력'과 '관계형성능력'의 정의를 중심으로 하위요소를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그 배경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대안을 탐색한 후, 비판적 사고를 통한 추론과 가치 판단에 따른 의사 결정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관계형성능력'이란 대상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과 공감, 배려와 돌봄을 통해 공동체 감수성을 함양하여 자신과 가족, 친구,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건강한 상호작용과 관계를 형성·유지 할 수 있는 능력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5a). 각 교과역량의 정의를 중심으로 교과역량의 하위요소를 만들었다.

둘째, 위에서 정리한 교과역량을 중심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문서에 제시된 '핵심역량' 중에서 상호 관련성을 고려한 '관련 핵심역량'을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Lee 외(2014)의 연구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의 의미와 하위요소(안)'에 대한 내용에서 위에서 정리한 '관련 핵심역량'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하위요소를 정리하였다.

넷째,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성격에 제시된 두 교과역량의 정의와 Lee 외(2014)의 연구에서 제시한 하위요소를 비교·분석한 후에 본 연구에 사용할 교과역량 분석 준거의 하위요소를 개발하였다. 두 자료에 명시된 용어들 중 일부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으나 의미가 유사한 경우에는 하나의 용어로 하위요소를 통합하였고 포괄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을 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의미에 따라 분리하여 하위요소를 개발하였다. 첫 번째 교과역량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는 Lee 외(2014)의 연구에 제시된 하위요소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통한 문제 인식'에서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의 의미에 따라 논리적 사고로 구분하고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하위요소인 비판적 사고로 정리하였다. 하위요소 '해결 방안의 실행'과 '해결 방안의 평가'는 Lee 외(2014) 연구에서 제시한 하위요소 '해결 방안의 실행·평가'에서 실행과 평가의 의미에 따라 구분하여 두 하위요소로 각각 정리하였다. 그리고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 교과역량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정의에서 나타난 '실행능력'은 Lee 외(2014)의 연구에서 제시한 '정보처리능력'의 하위요소 '해결 방안의 실행'

과 유사한 의미로 판단하였고 '매체 활용 능력'은 기술적인 능력이므로 실제로 실행하는 측면에서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해결 방안의 실행'으로 통합하였다.

두 번째 교과역량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 '타인 존중'과 '의사소통'은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하위요소 '타인 존중과 소통'에서 존중과 소통의 의미에 따라 분리하였고 Lee 외(2014)의 연구에서 '타인의 이해 및 존중'을 유사한 의미로 보고 '타인 존중'으로 통합하였다. '환경 및 생태 의식'은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 '관계형성능력'의 정의로 '자원, 환경과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언급하였으므로 하위요소로 포함되었다. 또한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로 제시한 '공감능력'과 '갈등관리'에서 두 용어의 의미에 따라 '공감능력'과 '갈등관리'로 분리하였고, Lee 외(2014)의 연구에서 '심미적감성능력'의 하위요소 '공감'을 '공감능력'으로 통합하여 정리하였다.

하위요소 '문화수용성'은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하위요소를 중심으로 Lee 외(2014)의 연구에서 제시한 '문화적 감수성'을 유사한 의미로 판단하여 통합하였고, '다원적 가치 존중'은 Lee 외(2014)의 연구에서 제시된 하위요소로 추가하였다.

다섯째, 위에서 개발된 분석 준거의 하위요소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Lee 외(2008)의 연구에서 설정한 '미래 사회 한국인의 핵심 역량(안)'에 제시된 하위요소에 따른 정의를 비교·분석하여 정의를 작성하였다.

여섯째,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개발한 '가정생활' 분야의 교과역량의 분석준거를 바탕으로 핵심개념 '관계' 관련 단원 내용을 분석하였다. 내용 분석은 본 연구자가 개발한 분석준거에 따른 교과역량의 하위요소와 의미를 통해 판단하였다.

4. 분석 방법

개발된 분석 준거를 기준으로 교과서 분석을 실시한 뒤 분석 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가정교과 전문가 2인(가정교과교육 전공 교수 1인, 교과역량을 주제로 교과서분석 논문을 준비 중인 가정교과교육 석사과정생 1인)에게 연구자의 분석 결과를 검토 받았다. 본 연구자가 '실천적문제해결능력'과 '관

계형성능력'의 범주로 12종 출판사의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과제의 분석 결과표를 전문가에게 이메일로 보내어 검토받았으며, 검토 결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한 경우 차이를 보인 내용에 대하여 한 자리에 앉아 또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논의를 하여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 차이가 나타난 원인과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한 예시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분석 결과에 차이가 나타난 원인으로는 대부분 활동과제의 질문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활동내용으로만 역량을 분석할 것인지, 활동과제의 질문에 역량 관련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역량을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L교과서의 활동과제 중 '가족회의를 통해 우리 가족이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보고, 우리 가족의 가훈을 만들어 실천해보자.'에서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을 찾는 것은 실천적 추론 모형에 있는 바람직한 대안 탐색 및 최선 안의 선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모형에 초점을 두어 '실천적 추론'으로 분석해야 하는지, 연구자의 분석 준거 정의에 따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안 중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으로 분리하여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의 초점이 다른 부분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활동과제 수행과정을 포함하여 역량을 분석하는 것으로 최종 분석 결과를 확정하였다.

두 번째로 분석 결과에 차이가 나타난 원인은 역량의 하위 요소 간 의미의 모호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과 가치판단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그 중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결정하는 과정으로, 활동과제에서 목표를 위한 최종적으로 대안을 결정하거나 정리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판단하였다. '가치판단'은 사람의 주관이나 기호에 관련된 것으로 행해야 하거나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진술, 어떤 것이 좋거나 바람직하거나 옳다는 주장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용어로서 명시되지 않아도 활동과제에 따라 활동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에는 가치판단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면, L교과서의 활동과제 중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하여 우리 가족의 고민을 듣고 조언을 하는 활동을 해 보자(42).'에서 고민을 듣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가치판단' 역량을, 의사소통 방법으로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역량을, 조언하는 활동에서 '해결 방안의 실행'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분석의 초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분석 준거에 대해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수정·보완하였다.

세 번째로 분석 결과에 차이가 나타난 원인은 활동과제의 문두를 위주로 분석할 것인지, 아니면 예시로 보여준 사례나 만화, 하부 항목 등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연구자는 활동과제의 문두를 위주로 분석하였으나, 검토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예시로 제시된 자료까지도 분석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논의한 결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활동과제도 일관성있게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판정에 대한 예시로 L교과서 분석 결과에 대한 합의과정을 보여준 것은 <Table 4>와 같다. 예를 들면, <Table 4>의 내용 중 37쪽에 제시된 '5. 다음의 사례를 바람직한 표현으로 바꿔 써보자. 그리고 두 사람이 짝이 되어 각 사례에 대해 역할극을 해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보자.'의 경우 연구자는 문두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타인존중', '공감능력', '의사소통'에만 체크하였는데, 검토자 1, 2는 '배려와 돌봄', '갈등관리'도 추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판정결과를 연구자가 동의하여 교과역량 '관계형성능력' 하위요소 중에서 5개 항목이 구현된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IV. 연구결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12종의 중학교 기술·가정 2 교과서에서 핵심개념 '관계' 관련 단원인 첫 번째 대단원의 활동과제를 분석한 결과, 개념 및 용어를 설명하거나 시각적 자료, 읽기자료 등 학생들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지 않은 자료로 판단되는 과제를 제외하고 총 486개의 활동과제가 분석되었다. 그리고 두 역량별로 구분해 보면 총 486개의 활동과제 중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이 구현되

Table 4. An example of inter-rater agreement of textbook L

활동과제(페이지)	관계형성능력 하위요소								분석자
	타인 존중	배려와 돌봄	환경 및 생태 의식	가족 관계와 공동체 의식	공감 능력	갈등 관리	의사 소통	문화 수용성	
1. 다음 항목에 대한 각 가족 구성원의 개인 점수와 가족의 평균 점수를 구하여 우리 가족의 건강성을 확인해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자.(22)	•	•				•	•		연구자
	•	•		•	•	•	•	•	검토자1
	•	•		•	•	•	•	•	검토자2
	•	•		•	•	•	•	•	최종
2. 우리 가족은 평소에 어떻게 대화하는지 4컷 만화로 나타내보자. 또한, 우리 가족이 대화로 더 좋은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자.(27)				•			•		연구자
	•	•		•	•	•	•		검토자1
	•	•		•	•	•	•		검토자2
	•	•		•	•	•	•		최종
3. 우리 가족의 구성원 중 한사람을 골라 다음 질문에 답해 보자. 제시된 대화를 읽고, 상대방 친구가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여 답해 보자.(31)	•	•		•	•		•		연구자
	•	•		•	•	•	•		검토자1
	•	•		•	•	•	•		검토자2
	•	•		•	•	•	•		최종
4. 두 사람이 서로 역할을 바꾸어 가며 듣기 실습을 한 후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정리해 보자.(37)	•				•		•		연구자
	•	•			•	•	•		검토자1
	•	•			•	•	•		검토자2
	•	•			•	•	•		최종
5. 다음의 사례를 바람직한 표현으로 바꿔 써보자. 그리고 두 사람이 짝이 되어 각 사례에 대해 역할극을 해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자.(37)	•				•		•		연구자
	•	•			•	•	•		검토자1
	•	•			•	•	•		검토자2
	•	•			•	•	•		최종

지 않은 것은 58개였으며, 관계형성능력이 구현되지 않은 것은 141개였다. 이를 제외하면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이 구현된 활동과제는 428개, 관계형성능력이 구현된 활동과제는 345개로 나타났다. 분석한 결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종류별, 역량별로 기술하였다.

1. 교과서 종류별 교과역량 범주 분석

교과서 종류별 역량 하위요소에 따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이 구현된 활동과제는 428개, 관계형성능력이 구현된 활동과제는 345개였으나, 활동과제의 하위 내용까지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실천적문제

해결능력은 815건, 관계형성능력은 1,137건으로 나타났다. 교과서 종류별 교과역량이 얼마나 구현되었는지 살펴본 결과, A교과서가 15.6%(127건)로 제일 많이 구현되었고, D교과서가 4.3%(35건)로 제일 적었으며 교과서 종류별로 구현된 교과역량의 차이가 많았다. 이는 교과서 분석 연구 중에서 교과내용요소가 교과서 출판사별로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 선행연구들과 비교된다. 다시 말해서,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11종 기술·가정교과서의 ‘가족생활’ 내용을 분석한 연구(Kim, 2014), ‘소비생활’ 내용을 분석한 연구(Lee, 2015)에서는 교과서가 동일한 교육과정 내용체계를 바탕으로 단원내용이 구성되기 때문에 출판사에 따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Jin 등(2015)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집필 시, 교과, 실습(체험) 활동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Table 5. Analysis of subject competencies of 12 textbooks

역량 교과서 종류	실천적문제해결능력								관계형성능력									
	하위 요소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실천적 추론	의사 결정	가치 판단	해결 방안의 실행	해결 방안의 평가	누계 (%)	타인 존중	배려 와 돌봄	환경 및 생태 의식	가족 관계와 공동체 의식	공감 능력	갈등 관리	의사 소통	문화 수용성	다원적 가치 존중
A	16	26	16	19	38	9	3	127 (15.6)	17	16	-	34	10	23	17	6	7	130 (11.4)
B	10	14	9	6	28	6	3	76 (9.3)	11	10	-	16	9	15	12	6	6	85 (7.5)
C	3	15	17	5	21	3	2	66 (8.1)	21	19	-	17	3	17	23	4	-	104 (9.1)
D	4	9	3	1	17	1	0	35 (4.3)	10	9	-	7	5	7	8	2	-	48 (4.2)
E	5	10	12	11	30	8	4	80 (9.8)	8	10	-	19	7	12	21	-	-	77 (6.8)
F	11	13	4	3	14	3	1	49 (6.0)	5	5	-	16	3	10	6	1	1	47 (4.1)
G	8	5	10	11	28	12	6	80 (9.8)	22	22	-	16	6	10	21	3	3	103 (9.1)
H	7	15	7	11	24	5	3	72 (8.8)	8	8	-	18	5	14	14	1	1	69 (6.1)
I	8	10	6	9	25	3	3	64 (8.0)	9	9	-	25	3	21	12	-	-	79 (6.9)
J	5	6	8	11	19	2	0	51 (6.3)	7	8	-	10	-	7	10	-	-	42 (3.7)
K	1	1	8	9	40	7	8	74 (9.1)	45	48	-	60	16	55	64	-	-	288 (25.3)
L	3	4	6	3	15	6	4	41 (5.0)	12	12	-	7	8	9	13	2	2	65 (5.7)
총계	81 (9.9)	128 (15.7)	106 (13.0)	99 (12.0)	299 (36.6)	65 (8.0)	37 (4.5)	815	175 (15.4)	176 (15.5)	0 (0.0)	245 (21.5)	75 (6.6)	200 (17.6)	221 (19.4)	25 (2.2)	20 (1.8)	1,137

추구되어야 하는 교과역량을 함께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고 교과역량에 대한 이해와 구현을 위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 종류별 교과역량이 차이가 난 것으로 생각된다.

A교과서는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 중 가치판단(38건, 29.9%)과 논리적 사고(26건, 20.5%)에 집중되어 있었고,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는 가족관계와 공동체의식(23건, 26.2%), 갈등관리(23건, 17.7%)로 가족 관계 내 갈등과 해결방안에 중점을 두었고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의 어려움과 해결방안 탐색을 통해 문화수용성과 다원적 가치 존중을 다루며 타 교과서에 비해 문화·가치의 다양성과 존중을 활동과제

에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다.

B교과서의 경우 A교과서와 동일하게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 중 가치판단(28건, 36.8%)과 논리적 사고(14건, 18.4%)가 전체 50% 이상으로 분석되었고,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는 가족관계와 공동체의식(16건, 18.8%), 갈등관리(15건, 17.6%)로 가족 관계 및 갈등 관리에 대해 강조하며 ‘가족 모두를 위한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을 주제로 문화수용성, 다원적 가치 존중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교과서에서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 중 가치판단(21건, 31.8%)과 실천적 추론(17건, 25.8%)이 전체 57% 이상으로 나타나 두 역량을 중점적으로 기르도록 구성된 것으로 분

석되었다.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는 의사소통(23건, 22.1%), 타인 존중(21건, 20.2%), 배려와 돌봄(19건, 18.3%) 순으로 분석되었다.

D교과서에서는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 중 가치 판단(17건, 48.6%)과 논리적 사고(9건, 25.7%)를 전체 70% 이상 강조하였으나, 최선의 대안을 실행한 후 평가하여 재점검하는 해결 방안의 평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를 살펴보면, 타인 존중(10건, 20.8%)과 배려와 돌봄(9건, 18.8%)이 빈도가 높게 나타나 타인 존중 및 배려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그 다음으로 가족관계와 공동체의식(7건, 14.6%)에 대한 내용을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D교과서도 C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다원적 가치 존중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교과서의 경우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로 가치 판단(30건, 37.5%)을 강조하고 순차적으로 실천적 추론(12건, 15.0%), 의사결정(11건, 13.8%), 논리적 사고(10건, 12.5%) 등으로 나타나 실천적 추론 과정에 따른 해결 방안 마련, 실행 및 평가를 통해 해결 방안의 실행(8건, 10.0%), 해결 방안의 평가(4건, 5.0%)의 역량을 함양하도록 구성되었다.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는 의사소통(21건, 27.3%), 가족관계와 공동체의식(19건, 24.7%)으로 전체 50% 이상으로 가족 관계 내 의사소통을 강조하였으나 문화수용성, 다원적 가치 존중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F교과서는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 중 가치 판단(14건, 28.6%)과 함께 논리적 사고(13건, 26.5%)와 비판적 사고(11건, 22.4%)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판단력과 사고력을 강조하였다.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는 가족관계와 공동체의식(16건, 34.0%)과 의사소통(6건, 12.8%)으로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반면, 문화수용성과 다원적 가치 존중은 각 1건의 낮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G교과서에서는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 중 가치 판단(28건, 35.0%)과 해결 방안의 실행(12건, 15.0%)에 중점을 둔 내용 구성과 함께 전체의 22.5%를 해결 방안의 실행(12건, 15.0%) 및 해결 방안의 평가(6건, 7.5%)로 구성하여 12종의 교과서 중 실행 및 평가의 비중을 고려한 내용 구성으로 분석되었다.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에서 타인 존중(22건, 21.4%)과 배려와 돌봄(22건, 21.4%)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의사소통 21건(20.4%), 가족관계와 공동체의식(16건, 15.5%)으로 가족 간의 존중 및 배려있는 의사소통을 강조하였다. 반면, 다문화 축제 홍보물 제작의 통합적 활동과제에서 문화수용성과 다원적 가치 존중의 역량을 제시하여 다른 하위요소에 비해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H교과서의 경우에는 ‘실천적문제해결능력’ 중 가치판단(24건, 33.3%), 의사결정(15건, 20.8%)으로 타 교과서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3건의 낮은 빈도를 나타낸 해결 방안의 평가는 주제별 활동과제 도입부의 영상이나 마무리를 통해 느낌을 묻는 감성적 측면의 평가로 제시하고 있었다.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는 가족관계와 공동체의식(18건, 26.1%), 갈등관리와 의사소통(각 14건, 20.3%)으로 가족 간 의사소통에 따른 갈등 해결을 강조하는 반면, 문화수용성과 다원적 가치 존중에 대한 부분이 다른 하위요소에 비해 매우 낮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I교과서는 ‘실천적문제해결능력’에서 가치판단(25건, 38.5%), 논리적 사고(10건, 15.4%)를 강조한 활동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는 가족관계와 공동체의식(25건, 31.6%)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나 문화수용성과 다원적 가치 존중은 활동과제에서 제시되지 않은 특정 역량 중심의 구성을 보였다.

J교과서에서는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 중 가치 판단(19건, 37.3%)과 의사결정(11건, 21.6%)에 집중되어 있었고, ‘관계형성능력’은 가족관계와 공동체의식, 의사소통(각 10건, 23.8%)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타 교과서들과 다르게 ‘공감능력’이 제시된 활동과제가 나타나지 않았고, 앞서 살펴본 E, I 교과서와 같이 문화수용성, 다원적 가치 존중에 대한 활동과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K교과서의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치판단(40건, 54.1%)과 의사결정(9건, 12.2%)로 타 교과서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 교과서에 비해 ‘관계형성능력’ 하위요소의 빈도에 대한 차이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분석한 결과, 본 연구자가 설정한 분석 범위로 큰 주제의 활동과제에 명시된 내용(키워드)을 개별 활동과제의 내용에 포함하여 하나의 활동과제로 분석함에 따라 동일한 하위요소가 과제 안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관계형성능력’에서는 의사소통(64건, 22.2%), 가족관계와 공

동체의식(60건, 20.8%)이 높은 빈도로 나타난 반면에 문화수용성과 다원적 가치 존중은 제시되지 않아 문화적 차이 및 가치의 이해·존중 부분에 대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L교과서에 나타난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은 가치판단(15건, 36.6%)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실천적 추론과 해결 방안의 실행(각 6건, 14.6%) 등으로 나타났다. ‘관계형성능력’은 의사소통(13건, 20.0%), 타인 존중, 배려와 돌봄(각 12건, 22.0%)으로 나타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내용에 중점을 둔 활동과제로 구성되어 있었고,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주제로 한 활동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낮은 빈도로 나타났지만 문화수용성과 다원적 가치 존중을 다루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 교과역량별 교과서 분석

가. 교과역량 ‘실천적문제해결능력’에 따른 교과서 분석

교과역량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은 전 생애에 걸쳐 직면하게 될 경험과 문제를 다양한 경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으로 기술·가정 교과의 ‘가정생활’ 분야에서 중점을 두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12종 중학교 기술·

가정 교과서의 핵심개념 ‘관계’ 관련 단원에 교과역량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은 얼마나 구현되었는지 빈도를 분석하면 다음 <Figure 1>과 같다.

역량의 하위요소 중 가치판단의 빈도가 299건(36.6%)으로 모든 교과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논리적 사고(128건, 15.7%), 실천적 추론(106건, 13.0%), 의사결정(99건, 12.1%), 비판적 사고(81건, 9.9%), 해결 방안의 실행(65건, 8.0%), 해결 방안의 평가(38건, 4.7%)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교과서의 활동과제에서 핵심개념 ‘관계’와 주제 ‘가족’을 담고 있는 I 단원에서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 명시된 내용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의 구조, 기능, 역할, 다양한 가족 관계,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관계, 가족 내 갈등 및 의사소통을 통한 해결, 건강가족 형성 등을 학습내용의 주제로 구성하여 학습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작성하거나 발표, 결과물을 제작하게 함으로써 가치판단을 기르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많았으며, 큰 주제 활동을 실천적 문제해결과정의 단계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는 활동과제를 제시하고 단계별 문제 해결을 통하여 역량의 하위요소별로 기르도록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다만 해결 방안의 평가는 다른 하위요소보다도 낮은 빈도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학습자가 선택한 결과를 실행하는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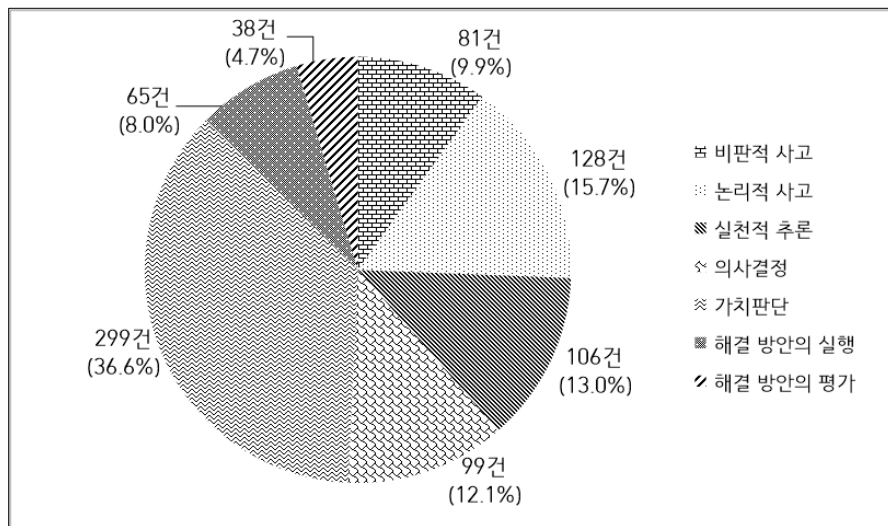


Figure 1. Analysis results of ‘practical-problem-solving ability’

계에 그치는 활동과제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교과역량 ‘관계형성능력’에 따른 교과서 분석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관계형성능력’은 대상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과 공감, 배려와 돌봄을 통해 자신과 가족, 친구,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건강한 상호작용과 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되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a). 특히 이 교과역량은 핵심개념 ‘관계’와 밀접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12종의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에서 ‘관계형성능력’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빈도 분석한 결과를 보면 <Figure 2>와 같다.

역량의 하위요소 중 가족관계와 공동체의식이 245건(21.5%)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의사소통(221건, 19.4%), 갈등관리(200건, 17.6%), 배려와 존중(176건, 15.5%), 타인 존중(175건, 15.4%), 공감능력(75건, 6.6%), 문화수용성(25건, 2.2%), 다원적 가치 존중(20건, 1.8%)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소 중 환경 및 생태 의식을 활동과제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핵심개념 ‘관계’와 밀접한 내용요소로 구성된 기술·가정 2 교과서의 I 단원을 분석하였으므로 ‘관계형성능력’의 ‘환경 및 생태의식’ 하위요소는 해당 단원과의 관련성이 낮고, 또 이 단원에서는 이 역량을 함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다양한 가족 구조 및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 I 단원의 활동과제에서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 ‘문화수용성’과 ‘다원적 가치 존중’의 빈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역량의 하위요소에 비해 ‘문화수용성’은 2.2%, ‘다원적 가치 존중’은 1.8%로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른 역량에 비하여 활동과제에서 적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양성 및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활동과제보다 그림이나 표, 개념 설명을 통한 내용으로 교과서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교과역량 ‘실천적문제해결능력’과 ‘관계형성능력’의 분석준거를 설정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핵심개념 ‘관계’ 관련 단원을 분석함으로써 교과역량의 전체적인 경향, 교과내용과 역량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교과역량의 함양 및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의 구성 및 교수·학습 방법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교과역량 분석 준거는 ‘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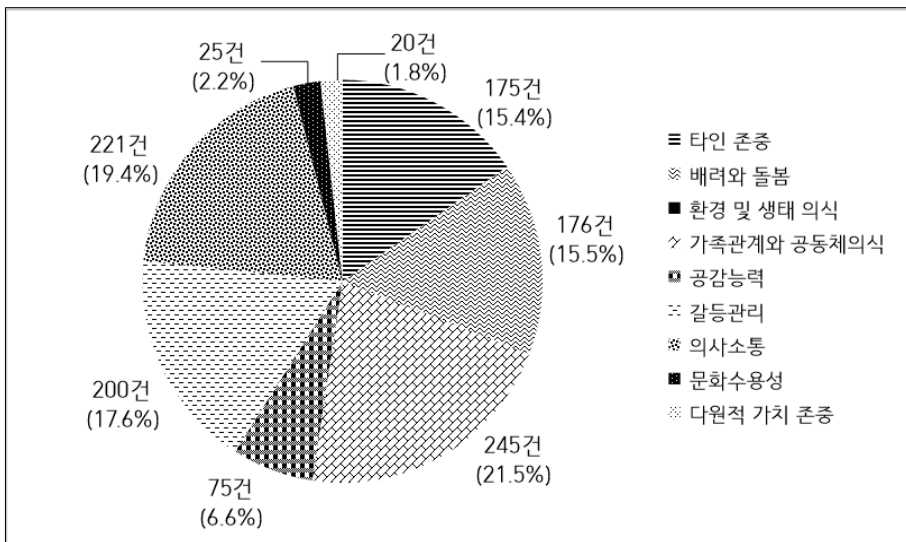


Figure 2. Analysis results of ‘relationship ability’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설정 연구(Lee et al., 2014)'와 '미래 한국인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비전연구(II)(Lee et al., 2008)',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2015a)',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Ministry of Education, 2015b)' 등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설정된 분석 준거에 따라 교과역량이 얼마나 구현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12종 출판사의 중학교 「기술·가정 2」 교과서의 핵심개념 '관계' 관련 단원인 첫 번째 단원의 활동과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역량 '실천적문제해결능력'과 '관계형성능력'을 교과서 출판사별로 분석한 결과,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은 815건의 하위요소가 분석되었고, 구현된 교과역량이 교과서 출판사별로 차이가 많았다. A교과서(127건), E교과서와 G교과서(각 80건), B교과서(76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 것은 D교과서(35건)였다. '관계형성능력'은 1,137건으로 K교과서(288건), A교과서(130건), C교과서(104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 것은 J교과서(42건)였다. 이는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 중에서 교과내용 요소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요소가 출판사별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Kim, 2014; Lee, 2015) 결과와 비교된다. 이는 교과역량에 대한 이해와 구현을 위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교과역량을 교과서에 구현하는 것에 대한 지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과서 종류별 교과역량이 차이가 난 것으로 생각된다.

교과서 종류별 중점을 둔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에 따라 정리해보면, A, B, D, F, H, I 교과서는 가치판단과 논리적 사고, C, E교과서는 가치판단과 실천적 추론, J, K교과서는 가치판단과 의사결정에 중점을 둔 활동과제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에 따른 결과로 A, B, H, I 교과서는 가족관계와 공동체의식, 갈등관리, C, E, J, K교과서는 가족관계와 공동체의식, 의사소통을, G, L교과서는 타인 존중, 배려와 돌봄,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활동과제를 구성하고 있었다.

둘째, 교과역량 '실천적문제해결능력'과 '관계형성능력'을 분석한 결과를 역량별 하위요소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천적문제해결능력'에서는 가치판단이 299건(36.6%)

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이어서 논리적 사고, 실천적 추론, 의사결정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활동과제의 내용에 따라 학습자가 사고 및 추론과정을 통해 자신의 주관적인 가치를 더해 발표하거나 결과물을 제작하는 활동과제로 실행과 평가를 통해 자신의 행동 및 의사결정을 재확인하는 역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관계형성능력'에서는 가족관계와 공동체의식이 245건(21.5%)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의사소통, 갈등관리, 타인 존중, 배려와 존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 및 생태의식은 본 연구자가 핵심개념 '관계'와 밀접한 내용요소인 '가족'으로 구성된 기술·가정 2 교과서의 I 단원을 분석하였으므로 주제와 관련성이 낮음에 따라 해당 역량 함양에 중점을 두지 않아 9가지 하위요소 중 유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 중 문화수용성과 다원적 가치 존중이 매우 낮은 빈도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관계' 관련 I 단원에서 다양성 및 다문화의 이해 관련 내용을 활동과제보다 본문의 그림이나 표, 개념 설명을 통해 다루고 있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활동과제에서 적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12종의 기술·가정 2 교과서에서 핵심개념 '관계' 관련 단원의 활동과제는 교과역량 '실천적문제해결능력'과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별로 구현된 비중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두 개의 교과역량이 모두 구현되었으며, 학습자인 청소년들이 실제 가족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 등 다양한 문제들을 활동과제로 구성하였으므로 학교 교육을 통해 교과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Lee 등(2015)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표방하는 핵심 역량이 교과 교육과정 문서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의 수업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핵심 역량→교과 역량→기능→(수업, 학습)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도를 제안하였다. 이에 교과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교현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분석준거인 교과역량의 하위요소를 중심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여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가정과교육에서의 교과역량은 하위요소별 비중을 고려한 체계적인 내용 구성으로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문제해결능력과 관계형성능

력을 키워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량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정교과사들이 각 교과서별로 다르게 구현된 교과역량을 참고하여 수업시간에 흥미롭고 유익한 활동과제로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교과역량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핵심개념 ‘관계’ 관련 단원으로 중학교 기술·가정 2 교과서의 I 단원 내 활동과제만을 중심으로 교과역량 ‘실천적문제해결능력’과 ‘관계형성능력’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중학교 기술·가정 2 교과서의 I 단원에 제시된 활동과제만으로 교과역량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을 나타내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를 위해 향후 본 연구자가 분석하지 않은 본문 내용과 그림을 포함하여 교과역량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정생활’ 분야에서 제시한 6가지 핵심개념 중 ‘관계’ 관련 단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내 ‘가정생활’ 분야에서 제시된 다른 핵심개념을 다른 단원을 대상으로 교과역량 분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연구 내용이 수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교과서에 구현된 교과역량을 교과서별로 양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로 교과역량이 어떤 학습요소를 통해 구현되고 있는 지 등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Cheong, J. H., Lee, S. J., & Yoo, T. M. (1998). A analysis of the relevance between home economics and other subjects in the middle school.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0(1), 77-93.

Choi, J. H. (2002). Analysis of family life part in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s for middle School.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4(1), 15-25.

Go, I. G. (2014). The content analysis on the unit 'my growth and family' from the viewpoint of a strong family. *The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0(1), 127-147.

Jin, E. N., Kwon, Y. J., Jeon, S. K., Kim, M. J., Kim, Y. I., Ko, I. G.,...Choi, Y. H. (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2015 Revised curriculum draft proposal research II: Practical Arts / Technology-Home Economics curriculum]. Research report of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CRC 2015-25-8.

Jun, M. K. (2012). A study of ‘families’ as presented during the technology-home economics subject in middle school: Focusing on the ‘the changing family’ of the 2007 revised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4(2), 29-49.

Jung, S. K. (2004). *Sequentiality analysis of 'family life' section of home economics textbooks in middle and high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Kang, N. J., & Chin, M. J. (2017). Comparison of family-related contents of high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s between Korea and the U.S.: focusing on the elements of a healthy famil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5(2), 167-180.

Kim, E. -L. (2014). *The analyses of duplicated and different elements among textbook contents of Home Economics and other subjects for middle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Family Life’ area of the 2009 revised Home Economics curricul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Kim, J. S. (2017). An analysis of subject characteristics and key competencies in practical arts/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30(1), 1-18.

Kim, J. W., & Jun, M. K. (2012). A study on the change of family-related contents in home economics by national curriculum: Focus on the 1st national curriculum-the 2007 revised national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4(4), 19-37.

Kim, J. Y., & Cho, B. E. (2008). A content analysis of the family-related units in high school Home Economics

- textbooks from the theoretical viewpoint of structure functionalism · family development theory and healthy famil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1), 117-136.
- Kim, K. J., Gwag, S. H., Baek, N. J., Song, H. H., Ohn, J. D., Lee, S. M.,...Hong, E. S.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최종안] 개발 연구 [A study on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Research Committee.
- Kim, M. J., & Yoo, T. M. (2004). Content analysis of illustrations in the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s of the 7th curriculum by units from the gender equity perspectiv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6(4), 27-41.
- Kim, N. M. (2017). *A view of family diversity of the analysis on the unit of family in the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education textbook*.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won, Y. J., Kim, E. J., & Lee, Y. J. (2013). A comparative analysis of south Korean and the U.S. home economics curricula and achievement standard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5(4), 29-46.
- Lee, G. W., Jung Y. K., Seo, Y. J., Jung C. W., Choi, J. S., Park, M. H.,...Kim, S. H. (2014). *A study on the guidelines for subject curriculum development*. Research report of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CRC 2014-7.
- Lee, G. W., Min, Y. S., Jeon, J. C., Kim, M. Y., & Kim, H. J. (2008).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비전 연구(II)-핵심 역량 영역별 하위요소 설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vis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to promote Korean core competencies(II)- focusing on sub-element setting by core competency area]*. Research report of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RRC 2008-7-1.
- Lee, G. W., Jung, Y. G., Min, Y. S., Lee, G. H., Lee, J. Y., Lee, M. S.,...Kim, S. H. (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 국가교육과정 각론 조정 연구 [2015 Revised curriculum draft proposal research II: National curriculum particulars adjustment research]*. Research report of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CRC 2015-25-1.
- Lee, J. Y. (2002). *The study on continuity and sequences from 'Practical arts' contents in elementary school to 'Home Economics' contents in secondary school: Focused on the "family and work" se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 Y. (2015). *The analysis of duplicated contents of 'Consumer Life' area in Home Economics and other subjects textbooks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2009 revised curriculum of Home Economics, Social science, and Ethic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K. W. (2015). Core concepts and key competencies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In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1-29. Seoul, Korea: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 Lee, Y. S. (2010). An analysis on the units of 'adolescence self-management' and 'adolescence consumption life' in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s used in middle school: Focusing on how the emphasis of the 2007 curriculum revision is reflected.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3), 55-75.
- Lim, J., & Jun, M. -K. (2016). 'Development' and 'Relation', as the core concepts of Home Economics in 2015 Revised middle school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8(1), 1-17.
- Ministry of Education (2015a). *2015 revised Technology-Home Economics curriculum*. Proclam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5-74.
- Ministry of Education (2015b).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r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Proclam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5-74.
- Ohn, J. D., Kim, K. J., Kim, H. Y., Ryu, B. R., Park, S. Y., Park, J. H.,...Lee, H. J. (2016).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용 도서(교과서·지도서) 개발 방안 연구 [A study on ways to develop textbooks and teacher's guide books for enhancing subject competencies]*.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 Ohn, J. D., Kim, K. J., Park, H. K., Hong, E. S., & Hwang, G. H.

-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서(초등학교 개발 연구 [A study on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elementary school)]).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So, K. H. (2007). 'Competency' in the context of schooling: It's meaning and curricular implication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5(3), 1-22.
- Sung, E. M., Choi, C. W., Kim, H. K., Oh, S. Y., & Jin, S. H. (2015).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youth competency Index(KYCI) and defini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16(2), 117-144.
- Yang, J. S., & Yoo, T. M. (2015). Relations of key competencies and home economics curriculum in the competency-based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7(3), 1-18.
- Wang, S. S., Ryu, K. H., & Baek, J. W. (2012). Analysis on articulations of the domain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in the subject of Practical arts (Technology-Home Economic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4(1), 1-20.
- Yu, N. S., & Chae, J. -H. (2009). Home Economics teachers' reflection on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Home Economics education(H-PCK).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1(2), 83-107.
- 김기수 외 (2018).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 2. 원교재사.
- 김지숙 외 (2018).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 2. ㈜비상교육.
- 문성환 외 (2018).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 2. 씨마스.
- 왕석순 외 (2018).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 2. 동아출판(주).
- 윤인경 외 (2018).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 2. ㈜미래엔.
- 이봉구 외 (2018).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 2. ㈜교학도서.
- 이춘식 외 (2018).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 2. 천재교과서.
- 정성봉 외 (2018).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 2. ㈜교학사.
- 조강영 외 (2018).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 2. ㈜금성출판사.
- 채정현 외 (2018).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 2. ㈜삼양미디어.
- 최완식 외 (2018).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 2. 교문사.
- 최유현 외 (2018).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서 2. 지학사.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과역량 '실천적문제해결능력'과 '관계형성능력'의 분석준거를 설정하고 2015 개정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핵심개념 '관계' 관련 단원을 분석준거에 따라 분석하는 데 있다. 12종 출판사의 중학교 '기술·가정 2' 교과서의 핵심개념 '관계' 관련 단원에서 활동과제를 중심으로 개발된 분석 준거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에 구현된 교과역량이 출판사별로 차이가 많았다.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은 A교과서, E교과서와 G교과서가 높게 나타났고 반면 D교과서의 빈도가 가장 낮았다. '관계형성능력'은 K교과서, A교과서가 높게 나타났고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 것은 J교과서였다. 둘째, '실천적문제해결능력'과 '관계형성능력'의 역량별 하위요소 중심으로 12종 교과서 전체의 활동과제들을 살펴보면, 우선 '실천적문제해결능력'의 가치판단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이어서 논리적 사고, 실천적 추론, 의사결정 등으로 나타났다. '관계형성능력'에서는 가족관계와 공동체의식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의사소통, 갈등관리, 타인존중 등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환경 및 생태의식은 구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2015 개정 중학교 기술·가정 12종 교과서의 핵심개념 '관계' 관련 단원은 교육과정의 세부목표에서 제시된 두 교과역량을 대체로 구현하고 있다.

■논문접수일자: 2018년 11월 20일, 논문심사일자: 2018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6월 30일